

# “단 한명 실종자 없이 모두 가족 품 돌아와야”

## ■ 총무원장 추모사

지난 5월 9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어느 아들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단원고 한 학생의 열여덟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인생에서의 인연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작별을 한 날이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집안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삶의 인연을 다한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픈 일입니다. 이 무너진 마음을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유가족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자 모두를 가슴에 묻을 것입니다.

희생자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고, 모두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생명의 존엄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탐욕으로 일그러져있는 우리 사회에 큰 죽비 소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작고 아름다웠던 삶'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너무도 아픈 일입니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바꿀 것은 모두 바꾸어야 하며, 도려내야 할 것은 모두 도려내야 합니다.

정부당국은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과 함께 이번 참사의 배경과 원인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짚어내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바라며 '희생자와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기도정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봄마다 사무칠 것입니다. 그 때마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이치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떠났지만,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상주불멸(常住不滅)하니 희생자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희생자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이 얼마나 빛으로 가득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 연꽃으로 다시 핀 여러분의 빛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구호 활동을 펼친 잠수사들을 비롯해, 몸과 마음으로 도움을 보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다해 봉사활동을 해주신 스님들과 불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불보살님 전에 고인들의 왕생극락을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죽음을 아끼지 않으며 구호 활동을 펼친 잠수사들을 비롯해, 몸과 마음으로 도움을 보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다해 봉사활동을 해주신 스님들과 불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불보살님 전에 고인들의 왕생극락을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죽음을 아끼지 않으며 구호 활동을 펼친 잠수사들을 비롯해, 몸과 마음으로 도움을 보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다해 봉사활동을 해주신 스님들과 불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작지만 다시 희망을 썩뜨기 위해 마련했다. 장중하면서도 엄숙한 천도의식에 모두 눈물을 지으면서도 수많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발원했다. 추모제의 주요한 모습을 담았다.



20일 조계사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헌화하는 유가족(사진 위)도 백등을 들고 정근을 하는 스님들의 마음도 하나였다. 참회와 새로운 다짐. 신재호 기자

## 유가족 위한 정성 잇따라

총회의장단 수덕사...70여 곳  
'마음 치유 프로그램'도 검토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지원을 위한 불교계의 정성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진제 조계종 종정예하가 피해 성금 1000만원 전담을 시작으로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전달이 이어지며 모금된 성금도 1억6800만원(5월20일 현재)에 달하고 있다.



향적스님 중앙총회의장 정목스님 수석부의장 법안스님 차석부의장

중앙총회의장 향적스님과 부의장 정목·법안스님 등 총회의장단 스님들은 지난 19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담식을 갖고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총회의장 향적스님은 "국민적인 슬픔에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총회의장단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안산 합동분향소 조문에 이어 총회의장단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종단에

서도 유가족과 국민들이 슬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지운스님)는 지난 20일 세월호 희생자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으며, 서울 문수사(주지 태성스님)도 지난 20일 세월호 피해 지원금, 청소년 장학금 등 자비나눔 기금 7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하는 등 전국 사찰 70여 곳에서 십시일반 모금된 성금을 기부하며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임태규 기자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지난 16일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종단 법당에서 도감 하륜스님,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등 현지에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스님들을 격려하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종단의 뜻을 전했다.

## “실종자 가족과 끝까지 함께”

진도 팽목항 법당 격려 방문  
일감스님, 집행부 입장 전달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스님이 지난 16일 오후 종단을 대표해 진도 팽목항 법당을 방문해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이날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종단 법당을 찾아 현지에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하륜스님과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등 종단 스님들을 격려했다. 또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의 온정을 모은 금일봉을 전달했다.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단 차원에서 열리는 추모재를 앞두고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스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

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면서 "특히 총무원장 스님은 최일선에서 포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참사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팽목항 법당 도감 하륜스님은 "불교계가 약한 안산 지역 주민이 많은 만큼 불자들이 많지 않아 법당을 찾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면서 "그럼수록 진심으로 가족들에게 다가가고 이제는 종교를 초월해 불교에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져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종단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

튄날인 4월17일 현장에 조계종 사회 복지재단 산하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을 파견해 피해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진도군사암연합회 등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또 팽목항에 법당을 마련해 기도정진을 통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참사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현장을 찾은 자원봉사자의 수가 급감했음에도 실내체육관에 불교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운영되는 팽목항 법당 역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도=허정철 기자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예술원

(공방 내 불교 전시관)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1-302-1022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VER 성화불교예술원 을 검색하세요.

주·야 상담합니다

## 땀이 차지 않는 스님전용 바람막이 겸 우비

흡습, 발산 최고인 거위털 제품 전문 성우상사 '숙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



### 스님용 바람막이(우비겸용) 점퍼

- 특수천연단백질을 투습수소체에 도입시켜 만든 하이포라 소재
- 가볍습니다.
- 쾌적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흡습, 발산, 통풍이 강화된 상품입니다.
- 여행, 포행, 등산, 바람막이, 눈·비 올때 좋은 제품입니다.
- 물수건으로 닦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속조끼, 속바지

- 속조끼는 사계절 언제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보온제품입니다.
- 겹조끼보다 큰 솜털이 들어있어 보온성이 뛰어나며 향균기능을 위해 녹차염색을 하였습니다.
- 속바지는 겨울뿐 아니라 일교차가 큰 봄, 가을에 꼭 필요한 보온제품입니다.
- 거위솜털의 보온성과 안감의 녹차 염색으로 인한 향균기능이 더욱 쾌적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 후드점퍼

- 신상품 후드 점퍼입니다.
- 방수되는 겹감과 솜털은 안감으로 된 제품입니다.
- 많은 양의 거위솜털과 타제품에 비해 긴 기장으로 더욱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 제품 길이와 앞면 디자인에 따라 가격이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성우상사 관련상품

- 후드 점퍼
- 겹조끼, 속조끼
- 속바지, 겹바지
- 마고자
- 저고리
- 거위털 누빔바지
- 방수 팔토시
- 다리토시, 복대
- 거위털 버선
- 후대용 이불
- 최고급 거위털이불
- 베개, 패드

www.namsungwoo.co.kr

### S.W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동로5가 20번지 B1

☎ 대표번호 02-2679-2848

☎ 직통 010-3707-7016